

온누리에 가득, 희망·감동 전파하는 행복 메시지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오페라·뮤지컬·합창으로 엮은 총 3막 구성...성탄 의미 새겨
오 헨리 명작 재구성, 다양한 케털 '한자리' 기쁨과 위로 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옥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오페라 뮤지컬로 펼쳐진다.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과 7시30분 2차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14년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위 및 최우수 관객상을 수상하고 2015년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 최고상(혼성부문 1등상) 및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팝, 가곡의 장르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을 청중들에게 선사하는 단체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각 막마다 오페라, 뮤지컬, 합창의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한다.

제1막 '오페라'는 2천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제2막 '뮤지컬'은 미국의 유명 작

가인 오 헨리의 명작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재구성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제3막 '합창'에서는 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그들만의 음색으로 해석한 크리스마스 명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으로 '하이트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헨델 오라토리오 곡인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등 무대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통해 마음 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국내 투어 일정은 오는 25일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진주 경남문화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_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크리스마스 칸타타 '2막_크리스마스 선물'

예술회관(11월30일) ▲서울 여의도 KBS홀(12월1-4일) ▲부산 BEXCO 오디토리움(12월5-6일) ▲강릉아트센터(12월8일) ▲대구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12월13-14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12월17일) ▲울산문화예술회관(12월21일) ▲창원 315아트홀(내년 1월17-18일)을 차례로 찾아간다.

한편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최근 대한장애인협

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나선다.

양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공동 목표로 삼았으며,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이를 위해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그해 5월27일 전남도청 새벽광장을 지킨 그들을 기억하라”

문화예술행동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 출정식

오는 26일 자비신행회 1층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속에서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뜻을 오늘에 잇기 위한 문화예술행동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이 내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출정식을 마련한다.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 2026 출정식'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자비신행회 1층(동구 제봉로 134-옛 녹두서점 터)에서 열린다.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공양을 함께 나누며, 오후 7시부터는 '이야기마당'이 이어진다.

'새벽광장'은 오월항쟁의 마지막 밤과 새벽의 정신을 예술가와 시민의 힘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연례 문화예술행동이다.

행사 예산 역시 관공서의 지원 없이 시민들



지난해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 행사 모습

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마련된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빛을 비추는 그날, 꽃이 핀 오늘'을 슬로건으로 삼아 내년 5월26일 오후 5시18분부터 5월27일 새벽 5시27분까지 펼쳐질 '새벽광장 2026'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 방안을

공유한다.

예술가·시민·활동가·연구자 등이 참여해 '새벽광장'의 의미를 다시 살피고, 2026년 행사의 뼈대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 문의 010-6862-0000.

/최명진 기자

이용희 청자장·정광주 서예가·전통문화연구회 열쑤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주최하고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7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대동문화예술축전'과 함께 열린다.

올해 문화유산 부문에는 이용희 청자장, 미술 부문에는 정광주 서예가, 공연 부문에는 (사)전통문화연구회 '열쑤'(대표 김양균)가 각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우물상은 서각공예 나갑, 도예 이은석, 인장공예 장국신, 양복 명장 전병원, 나전칠기 조규열씨가 받는다. 미래인 재상에는 금융웅(국악), 김솔(문화기획), 박기찬(전통섬유), 송해랑(금속공예), 우남일(취타대)씨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은 김용하(남봉문학상), 공로패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수상한다.



이용희 청자장 정광주 서예가 김양균 열쑤 대표

대상 3명에게는 각 500만원, 한우물상은 각 200만원, 미래인재상은 각 100만원, 특별상 300만원 등 총 3천3백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축전 무대에는 열쑤(모듬북·사물놀이), 박맨싱어즈, 국악인 김산옥, 김향순·황연수 명창, 대금 김웅, 트로트 가수 전기호, 충장 취타대, 궁중 한복쇼, 아랑장고 공연이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이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